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완료

4월부터 지난달까지 카드 총 26만 2768매 시민에 지급 1인당 평균 9만9155원 사용... 슈퍼마켓·식당·병원 순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시민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도입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생계가 어려워지자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도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까지 총 26만2,768매(97.8%)의 카드를 시민에게 지급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용을 군산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군산사랑 선불카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까지 총 이용금액이 259억7,900만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9만9,155원을 사용했다.

월별 사용현황은 지급을 시작한 4월에 25만7,060건 63억7,000만원을 사용했으며, 5월에는 87만15,770건 170억8,800만원을 사용하여 카드 사용이 최고조에 달했다.

주요 사용분야로는 슈퍼마켓에 98억5,600만원(37.9%)을 사용하였으며 식당에 57억9,300만원(22.3%)을 사용하였고 그밖에 병원(6.8%), 주유소

(6.4%), 정육점(4.8%), 운동용품(3.3%), 의류(2.9%), 미용실(2.9%) 등에 고루 사용됐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말 군산지역 카드 매출은 전년대비 27.5%로 감소했으나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율이 60%를 넘어선 4월말에는 전년대비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5월말에는 전년대비 16.5%로 카드매출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번에 추진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 GM군산공장 철수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져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의 원리' 찾아라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실험 & 코딩 과학교실' ... 10일부터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10일부터 2020년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특강으로 '실험&코딩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복

권기금 후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서천군이 주관하여 진행된다.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준별 10차시로 운영되며, 4차시업혁명을 대비하여 컴퓨팅적 호기심과 창조적 사고력을 갖춘 지역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0일부터 지자체별 3개소에서 7개 강좌를 개설하여 강좌별 10회씩, 총 70회를 운영한다.

강좌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실험과학 ▲핀보드, 마이크로비트와 SW를 접목시킨 코딩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ksscienceclass>), 서천군은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ife.seoch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권기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생활과학교실은 강사비는 전액 무료이고, 학생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취약대상자의 경우에는 재료비 또한 무료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063-466-215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10일부터 2020년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특강으로 '실험&코딩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군산시, 운수업체 경영난 해법 모색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 시행

군산시가 운수업체 경영난과 시내버스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에 지속적인 운수업체 경영난과 및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

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선계획 수립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역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여객(주)과 우성여객(주)의 2개업체에서 1일 118대의 버스가 58개 노선 1,206회 운행을 하고 있으며, 한정된 버스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다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래 디오션시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이용자 수요에 시내버스 노선 수립과 벽지·오지 부분에 행복콜버스를 대체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수행중인 용역 결과에 따른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6일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명 위촉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6일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입법 고문에는 전영복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법률고문으로는 신홍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3명(입법 1명, 법률 2명)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다.

정길수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

시·결재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들이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3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일반음식점 대상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익산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지원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됐으며 일반음식점 116곳에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을 70%,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영업 시작 후 1년 이상 운영한 식당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식서류(한식 중식 일식 등)를 취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서투로 접수 받으며 현지확인 과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9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 "입식테이블은 활동에 제약이 가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청년동아리·선진지 견학 익산시 27개팀 선발·지원

익산시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모여라 청년동아리 지원' 과 '청년 선진지 견학 활동 지원' 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상반기 두 사업을 선발했고 각 팀 대표를 대상으로 5일 익산 청년센터 형숲(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사업 목적과 추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모여라 청년 동아리 지원'에 선정된 대상은 우리 지역 역사 탐방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사랑', '뜨개작품으로 재능기부를 꿈꾸는 '행복뜨개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농구팀 '익산 울포원' 등 총 10개 동아리이다. '선진지 견학활동 지원'에 선정된 팀은 모두 17개로 의료산업 학습 및 체험을 연구하는 '힐러', 구도심 재생지역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무궁무진'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여름철 감염병 발생주의보

익산시,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익산시가 하절기에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6일 각종 감염병 집단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7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관내 의료기관, 산업체, 학교 등과 질병모니터망을 활용해 검체 관리와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휴가철 야외활동 등으로 수인성 감염병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은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병원균 증식이 적합한 환경으로 간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어패류 섭취는 삼해야

하며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될 경우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모기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해 물림을 예방해야 한다.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금지하고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과 상담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조리위생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더불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